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시네마 2018.07.17
NO.6

아시아 시장,
행복 만능키를 찾아라!

INTERVIEW <세 친구> 밋지 페어원 감독

INTERVIEW <오늘도 평화로운> 백승기 감독

BIFAN


WHITE. 화이트점
02.393.5689 창천동 5-21 2F

BLACK. 블랙점
02.363.5689 창천동 18-11 2F

FOR PICNIC
FOR WORK
FOR PLEASURE

3.14planet.com

ROOM Escape

진짜를 탈출하고 싶다면
도전하라

무료한 일상속 특별한 한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8가지의 색다른 테마!

E V E N T

- 10:00 ~ 20:00
포스터 피규어 전시
부천시청 2층
- 10:00 ~ 20:00
인디라운지
그리고 인디스토리 20주년 전시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
- 10:00 ~ 20:00
전사로 만나는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
- 10:00 ~ 20:00
BIFAN VR 빌리지
부천시청 중앙공원
- 14:00
웹툰 투 필름 (B.I.G)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 14:00
메가트크 '바바라 크래튼의 판타스틱
영화의 세계'
CGV부천 3관
- 19:00
B.I.G/NAFF 폐막식, 시상식(B.I.G)
고려호텔 3층 그랜드볼룸

표지 감독 및지 페어원
사진 오계옥

S T A F F

- 발행인 배경록
- 편집장 주성철
- 취재팀장 이화정
- 취재 이주현 김현수 김소미
- 객원기자 김정현
- 사진 오계옥
- 사진객원 박종덕
- 디자인 김윤희 권지혜
- 제작총괄 심은하
- 제작 이준용
- 인쇄 (주)성전기획
-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신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BIFAN board



갓 스물, 다시 전력질주!

16일(월) 저녁 7시, 독립영화 제작·배급사 인디스토리의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린인 '인디스토리의 밤'에 많은 영화인들이 모였다. 광용수 인디스토리 대표는 "11월에 창립했는데 여름부터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창의적인 시나리오를 찾아서

영화제 산업프로그램의 꽃, 'BIFAN 시나리오 쇼케이스'가 7월 16일(월) 오후 3시부터 고려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영화의 오리지널 시나리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시나리오 쇼케이스는 부천국제영화제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인기 프로그램. 이날은 행사장 뒤편에 급히 간이 좌석을 배치할 정도로 영화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진행을 맡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남상욱 사무국장이 "할리우드에는 성행하지만, 아직 한국엔 없는 장르"라고 소개한 조상범 작가의 <커넥션>은 IMF 외환위기를 배경 삼은 금융 범죄 스릴러 컨셉을 내세워 이목을 끌었다. 그 밖에 오컬트와 풍자극을 조합한 민경근 작가의 <퇴마사기단>, 납치극을 통해 성공만능주의를 꼬집는 김호연 작가의 <크리티컬 아이>, 개발신도시의 비정한 풍경을 담은 <송도> 등 총 8개 작품의 작가가 피칭을 선보였다. 사회적 이슈에 관한 관심과 장르적 다양성이 뚜렷하게 돋보여 한국영화 시나리오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게 만든 자리였다. 김소미



한국영화, 소통을 모색하다

BIFAN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 공동주최한 '한국영화감독의 밤'이 15일(일), 부천 피맛골 지지미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영화감독조합은 해외 프로덕션과의 협업,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B.I.G 코리아 나우 '한국 감독들과의 해외 프로덕션 협업: 아시아에서 넷플릭스까지' 행사도 함께 가졌다. 이날 '한국영화감독의 밤' 행사에는 정지영 조직위원장과 진행을 맡은 임필성 감독을 비롯, 변영주, 권칠인, 장철수 감독 등 많은 국내외 감독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판타스틱한 우정의 무대

<박열>의 배우 최희서가 16일(월) CGV 소풍에서 진행된 인도영화 <가비지>의 GV에 참석해 특별한 우정을 과시했다. UC버클리 공연예술학과에서 공부할 당시 여러번 함께 공연했던 단짝 친구 탄메이 다니니아가 <가비지>의 주연배우로 BIFAN에 초청받은 것이 계기. 최희서는 "나의 오랜 친구가 인도와 영국을 넘나드는 훌륭한 배우가 되어 한국에 왔다"며 SNS를 통해 GV 참석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BIFAN이 두 친구의 10년 만의 재회를 증개한 셈이다.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미래의 발리우드 판타스틱 영화를 만나다

해마다 아시아의 한 국가를 정해 선정국의 장르 영화 프로젝트를 조망하는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의 일환으로 준비된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인도 피칭' 행사가 16일(월),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에서 열렸다. 최용배 집행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행사는 올해 선정국인 인도 감독과 제작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국내외 산업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칭 행사에서는 헨리 제임스의 소설 <나사의 회선>을 각색한 <한 여자의 시련>(바르가브 세이키아 감독)을 비롯해 <신들의 집>(비카스 산드라 감독), <보기 No. S4>(비살 푸리아 감독), <파라디스코>(로hit 미탈 감독)까지 총 4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피칭 행사를 통해 소개된 프로젝트들은 개별 비즈니스 미팅의 기회를 얻으며,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우에는 현금 제작비 혹은 후반 작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정현 객원기자



소장가치 100%의 기념품을 위해

유지혜
마케팅팀 기념품 기획 및 판매 관리

올해 기념품에서 특별히 신경 쓴 점은, 이번 영화제의 콘셉트가 '호러'지 않나. 기념품에도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 호러 콘셉트를 녹여려고 했다. '판타스틱 플리마켓' 운영도 담당했다고. '카와이 호러'나 '아미토 프로젝트' 같은 특색 있는 캐릭터 굿즈 업체를 섭외해 다양하게 부스를 구성하려고 노력했다. 개장 전에 관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땐 긴장도 되더라. 영화제에서 일 해보니 어떤가. 영화를 전공했지만 전에는 광고계에서 콘텐츠 기획을 했다.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니 더 보람이 큰 것 같다. 글 김정현 객원기자 · 사진 오계옥



"라섹 수술하고 본 첫 영화가 금지구역 섹션작일 줄이야..."
→ <가비지> GV에 방문한 배우 최희서. 절친한 친구 탄메이 다니니아가 주연작을 본 소감을 전하며.
"우리 모두 '왕자'라는 걸 기억해야만 한다."
→ <호랑이는 겁이 없지> GV에서 이사 로페즈 감독. 모든 사람이 가지 있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영화사가 20년을 버티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인디스토리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최용배 집행위원장. 독립영화가 자생하기 힘든 환경 속, 그간 전력 질주한 인디스토리의 공로를 치하하며.

Interview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여성

〈세 친구〉 밋지 페어원 감독

〈세 친구〉는 마약 거래를 하다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틸다와 페틀라가 어릴 적 친구인 다프네의 음산한 대저택에 들어서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피로 물들어가는 여성들의 꿈과 우정은 현실과 환각의 교차로 아찔하고 황홀하게 표현된다. 모델과 배우로 활동해온 밋지 페어원 감독이 장편 데뷔작 〈세 친구〉를 들고 부천을 찾았다.



직접 각본을 썼다. 어떻게 구상한 이야기인가.

역할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늘 흥미로웠다.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면서 가상의 인물과 세계를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할놀이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는 전제에서 공포가 시작된다. 역할놀이의 규칙은 우리가 살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여러 삶의 규칙에 대한 메타포이기도 하다.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좋아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 영화에선 틸다와 페틀라가 규칙을 따라야 하는 다프네의 대저택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다.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규칙을 택하지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는 시스템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안정감이나 익숙함에 천착하는 게 좋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친구〉를 보면서 여성의 감수성이 호러영화를 더욱 황홀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반드시 주인공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영화는 이루지 못한 꿈, 우정, 삶의 불확실성, 트라우마에 관해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는 성별을 떠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만 〈세 친구〉의 여자들은 모여서 남자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들 앞에서 당당하다. 많은 영화에서 여성들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엄마라는 역할을 부여받는데, 이 영화에선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여성들을 그리고 싶었다.

살아움직이는 듯한 촬영과 고전미술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프로덕션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전시를 많이 봤다. 르네상스 회화도 보고, 조각과 건축도 보고, 사이키델릭한 작품도 감상하고,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 업사이드다운 신이나 흑백과 컬러의 전환 등을 활용했다. 프로덕션 디자인의 경우 사이키델릭 원더랜드, 다크 원더랜드를 표현하려 했다.

모델 활동을 하다가 영화감독이 됐다.

이탈리아와 뉴욕에서 모델로 10년쯤 일했다. 꼭 영화감독이 되어야 했던 건 아닌데 지나고 보니 내 삶의 여러 궤적이 영화연출로 귀결되었던 것 같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고 감상하는 걸 좋아했다. 이번에도 직접 스토리보드를 그렸다. 그러다 이탈리아에서 뉴욕으로 건너와 연극 학교에 다녔다. 인간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연극을 배우고 연기를 시작했는데 나는 배우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일은 정말 행복하다. 이게 내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글 이주현 · 사진 오계욱

Interview

"나만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고 싶다"

〈오늘도 평화로운〉 백승기 감독

〈սոսոյի〉(2012), 〈시발, 놈: 인류의 시작〉(2016)으로 가내수공업 C급 코미디의 새 장을 열어젖힌 백승기 감독의 영화는 유쾌한 충격을 안겨줬다. 그의 재기발달함은 세 번째 장편 〈오늘도 평화로운〉에서도 여전하다. 영화 안팎으로 그를 한껏 성장시킨 그간의 스토리를 들어본다.



〈սոսոյի〉, 〈시발, 놈: 인류의 시작〉 이후 세 번째 영화 〈오늘도 평화로운〉을 만들기까지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차기작에 대한 고민으로 잠시 슬럼프에 빠져 있던 무렵, 맥북 중고거래를 사기당했다. 뭐랄까, 정말 '디지고' 싶었다.

그 덕분에 자신의 경험담이 강하게 투영된 영화가 완성됐다.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150만원 주고 샀다고 마음 먹었다. 이를 전화위복 삼아 영화에서라도 복수해보자고 생각하고 쓰기 시작했다.

마치 시리즈처럼 영어 원제가 전작들과 맥을 같이 한다.

〈슈퍼 비전〉, 〈슈퍼 오리진〉에 이은 〈슈퍼 마진〉이다. 원래는 한글 제목을 사기꾼들의 이득과 노트북 사기사건이 영준에게는 전화위복이 된다는 의미를 담은 〈개이득〉이라고 하려다가 전편들과의 일관성을 택했다.

전작들보다 제작비가 점점 오르고 있는 건가. 프로덕션 규모가 남다르다.

늘 독학으로 찍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다. 게다가 노트북 사기까지 당하니 머리가 어지러워질 정도였다. 그래서 SNS에 내 사연을 올리고 스태프들을 구인했더니 기적처럼 하나의 사단이 꾸러졌다. 출연 배우 대부분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주셨다.

이번 영화는 〈아저씨〉, 〈해바라기〉, 〈달콤한 인생〉, 〈테이큰〉, 〈원티드〉 등의 다양한 복수극을 레퍼런스로 활용한다.

그리고 완벽한 우상, 주성치를 빼놓지 않았다. 특히 〈희극지왕〉과 〈파괴지왕〉을 절묘하게 오마주하기도 했다. 이들 영화를 내 색깔에 맞게 담아내겠다는 의도였다.

영준 역의 배우 손이용은 세 편 모두 함께 했다.

연기전공자가 아님에도 감각과 센스가 뛰어나고 연출부 한 명분의 일도 도맡아 해주고 있다.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페로몬 향수 같은 존재다.

저예산 C급 코미디라는, 데뷔작부터 꾸준히 표방해온 백승기식 연출세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일까.

영화로 장난치나는 시선도 있지만 나만의 예술적인 표현 열망은 분명 있다. 이제는 내가 꾸러기 유치원의 원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배급도 잘 안 되면 나만의 새로운 배급 활로를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다. 꾸러기도 어른이 되겠지만 그 정신은 잃고 싶지 않다.

전작 〈시발, 놈: 인류의 시작〉에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오마주한 줄아웃 장면엔 비견할만한 '커밍슨 극장 간판' 줄인 장면에서는 차기작을 향한 어떤 염원이 느껴진다.

영화를 꿈꾸는 청년의 복수극을 표방하지만 한편으로는 백승기식 청춘 성장 영화이기에 다음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고 싶었다. 늘 찍고 싶다 이야기했던 우주 배경의 영화를 언젠가는 꼭 만들고 싶다.

글 김현수 사진 오계욱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General ©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C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BU3 CGV부천 3관 BU4 CGV부천 4관 BU5 CGV부천 5관 BU6 CGV부천 6관 BU7 CGV부천 7관 BU8 CGV부천 8관
 S02 CGV소풍 2관 S03 CGV소풍 3관 S04 CGV소풍 4관 S05 CGV소풍 5관 S06 CGV소풍 6관 MM 한국만화박물관 SS 송내술안이트홀



사탄의 숭배자

Satan's Slaves

조코 안와르 | 인도네시아 | 2017년 | 106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17 BU6 13:30 | 7.22 S06 15:30



한때는 잘나가는 가수였으나 3년 전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린 뒤로 서서히 죽어가는 엄마(아유 락스미)를 간호하기 위해 온 가족이 아늑한 산 속 외딴 집으로 이사를 한다. 그녀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는 아빠는 장녀인 리니와 아들 토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본다리와 이안 4남매, 그리고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하는 할머니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엄마가 결국 세상을 떠난다. 사건은 엄마의 장례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된다. 이들 4남매는 집 안 곳곳에서 죽은 엄마의 흔적을 느끼게 되고, 집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공포스러운 외형으로 변해가는 엄마의 모습은 이들 가족을 결속시킴과 동시에 파괴하는 원흉이다. 전형적인 오컬트 하우스 호러 영화의 장르규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공포영화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 미장센, 편집, 음악, 연기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장르 규칙의 교본 같다. <조니의 약속>(2005), <포비든 도어>(2009) 등을 연출한 조코 안와르 감독의 신작으로, 시스우로 가우타마 푸트라 감독이 1980년에 만든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했다. CJ E&M이 공동제작에 참여했으며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개봉해 역대 자국 공포영화 중 흥행 1위를 차지한 영화다.

김현수

세 친구 Braid

밋지 페어윈 | 미국 | 2018년 | 85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17 FA 17:30 | 7.21 S03 20:30



마약 거래를 하던 페틀라와 틸다는 거래에 실패하면서 큰돈을 잃게 된다. 마약상과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된 그들은 어릴 적 사고로 인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대프니를 찾아간다. 그들은 대프니의 집에서 머물기 위해 기이한 역할 놀이에 참여하게 되고 역할 놀이가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혼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영화는 두 친구가 느끼는 혼란을 화려한 색채로 장식된 프로덕션 디자인과 정신없고 과격한 연출을 통해 구현한다. 종종 과하고 산만하다는 인상을 주는 이미지의 연속이다. 하지만 이 이미지들은 영화의 이야기와 맞물리면서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의 영역으로 점차 넘어가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묘사해낸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화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김정현 객원기자

부동산 The Real Estate

악셀 페테르센, 몬스 몬손 | 스웨덴 | 2018년 | 88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7.17 S03 20:00 | 7.20 BU5 17:30



'금수저인 60대 노인이 더 안정적인 부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담은 블랙 코미디. 2018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후 호불호가 극명히 나뉘었던 작품임을 말해 두고 싶다. 68살의 노젓은 스톡홀름 시내의 고층아파트를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그녀는 아파트를 값비싸게 처분하려 하지만 상황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고간 아파트를 영망으로 관리한 노젓의 의붓형제 미키와 그의 아들 크리스가 갑자기 의욕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세입자들 또한 강경한 태도다. 조용히 온도를 높여가는 북유럽의 코미디 <부동산>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기 힘든 선택들을 보여준다. 참다못한 노젓이 총기 난사를 하는 등 거칠고 추잡한 특단의 조치가 경악을 자아내기도 한다. 인간을 향한 염세,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화에 대한 풍자로 똘똘 뭉친 울해의 문제작이다. 김소미

죽음을 부르는 밤 Dead Night

브래드 바루 | 미국 | 2017년 | 82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17 BU3 11:00 | 7.21 S06 15:20



제임스와 케이스는 아이들과 휴가로 외딴 시골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향한다.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던 그들은 숲속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된다. 가족들 덕분에 목숨을 구한 여자는 곧 정신을 차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로 가족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알 수 없는 여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은 가족의 휴가를 망가트리기 시작한다. 영화는 파멸로 다가가는 인물들의 이야기와 리얼리티 TV 쇼의 장면들을 병치시키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한 가족의 끔찍한 결말을 보여주는 TV 쇼라는 장치는 다소 전형적인 영화의 소재와 이야기에 독특한 분위기를 부여하며 영화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 할리우드 호러런 비바라 크램튼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으로 분해 강한 인상을 남긴다.

김정현 객원기자



〈삼형제〉

관객의 마음을 여는 만능키

특별전 '베스트 오브 아시아'로 돌아보는 아시아 흥행작의 경향

김소희 영화평론가

'베스트 오브 아시아'는 지난해 아시아 각국의 최고 흥행작 모음집이다. 1,441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흥행 스코어 2위에 오른 한국의 〈신과함께-죄와 벌〉(2017, 김용화 감독), 자국 내 흥행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흥행에 성공한 〈배드 지니어스〉(2017, 나타우트 폰피리아 감독) 등 익숙한 영화와 함께 필리핀의 〈복수 원정대〉(2017, 조이스 베르날 감독), 베트남의 〈불량소녀〉(2017, 레 탄 선 감독) 등 한국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

까지 12편이 상영된다. 흥행이 최고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재생산되는 이야기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가능하게 하는 이번 섹션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속지 않으려고 정신 차릴수록 막상 속았을 때의 패배감이 큰 미술처럼, 예측되는 서사의 향방 속에서도 결국 관객을 뉘고야 마는 한 방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봤다.

사소하지 않은 사소함

타이의 〈배드 지니어스〉의 학교는 자본주의의 축소판 같다. 커닝이라는 흔하고 사소한 일이 어떻게 SAT 시험 문제 유출이라는 거대한 음모에 가닿게 되는가를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 성적이 필요한 부유한 학생과 돈이 필요한 가난한 학생의 결탁 속에서 판은 점점 커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 간의 호감과 이를 배반하는 상황이 뒤얽힌다. 작은 것이 큰 맥락에 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영화답게 빠른 편집과 클로즈업이라는 흔한 방식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며 관객들을 상황 안으로 던져 놓는다.

베트남의 〈불량소녀〉는 두 남녀가 각자의 목적 아래 거짓된 연기를 하다가 진실한 감정에 눈뜨는 과정을 따라가는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을 보여준다. 20살 차이의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금기 혹은 범죄이지만, 특유의 발랄한 분위기로 위험과 불편을 덮는다. 공인된 이야기를 새로운 젊은 배우들을 통해 보여줄 때의 신선함이 가미된 안정감이, 때로는 새로운 이야기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립을 뛰어넘는 판타지

몇몇 판타지 영화는 대립한다고 이해된 가치들을 통합하는 나름의 방식을 제시한다. 인도의 〈타이거는 살아있다〉(2017, 알리 알바스 자피르 감독)에서 특수요원 생활을 접고 알프스에서 아내, 어린 아들과 안락하게 생활 중인 타이거에게 이라크 테러범의 인질이 된 간호사 구출 임무가 떨어진다. 파키스탄 특수요원 출신인 아내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사건에 다가가면서 가족을 지키는 아내 vs 가족과 일 사이에 방황하는 남편의 구도를 깨는 동시에 국제 관계의 지형도를 반영한다. 종교와 이해관계로 대립하는 국제정세에 맞서 '휴머니티'라는 이름의 통일을 제안하며 '인도적인' 가치를 세계에 흩뿌린다.

〈복수 원정대〉는 필리핀판 슈퍼히어로물이다. 말이 슈퍼히어로지, 재현 방식은 울트라맨류의 어린이용 특수촬영물에 가깝다. 조악한 영상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 양상들은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를 만든다. 주요인물부터 조역까지 알록달록한 색채로 대변되는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다. 초능력자 간다라의 변신 도구가 립스틱이라는 설정이 독특한데, 외모 꾸미기와 힘의 발현을 연결한 점은 다분히 현실적인 반영처럼 보인다. 결국 립스틱보다 마음의 힘이 더 강하다는 다소 교훈적인 결말로 귀결된 점은 아쉽지만, 밝고 경쾌한 감상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분신술을 통한 오락

인도 영화 〈메르살〉(2018, 아틀리 쿠마르 감독)과 〈삼형제〉(2017, K.S. 라빈 드라 감독)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트라우마가 인물의 주요 행동 동기라는 점도 통한다. 〈메르살〉이 트라우마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지연한다면, 〈삼형제〉는 트라우마로부터 출발한다. 〈메르살〉에서 분노의 화살은 가족의 상처에서 파생된 병원 비즈니스 권력을 향하고, 〈삼형제〉에서는 다음 아닌 자신과 똑같은 외모



〈배드 지니어스〉

의 형제들을 향한다. 그런 이유로 〈메르살〉은 복수의 성공이 중요하지만, 〈삼형제〉에서는 복수를 포기하는 과정이 중요해진다. 〈삼형제〉는 세 명을 쌍둥이로 설정해 주변 인물들뿐만 아니라 형제들 서로 간에도 누가 누구지를 착각하는 우습고도 살벌한 상황묘사를 통해 탄탄하고 흥미롭게 서사를 이어간다. 〈메르살〉에서 두 형제는 미술사와 의사로 각각 설정되었는데, 결국 누군가를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둘은 비슷하다. 〈메르살〉이 '복수'의 정당화를 위해 폭력이나 희생을 스펙터클화한 지점은 다소 아슬아슬하다. 오락영화의 맥락에서 의료산업의 폐해라는 굵직한 주제를 건드린 측면은 돋보이나, 그 사이에서 가져야 할 균형감은 생각해 볼 지점이다. 일인다역을 맡은 배우들의 열연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관람 포인트다.

공포의 순간을 정확히 포착

인도네시아 영화 〈사탄의 송배자〉(2017, 조코 안와르 감독)는 공포영화의 정도를 따른다. 영화는 주인공 가족이 사는 외딴집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무덤가의 음산한 기운을 담백 안은 이 집만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저절로 주파수가 맞춰지는 라디오, 병환 중인 어머니가 손에 쥐고 흔들던 종소리와 같은 사운드, 사람을 끌어들이는 우물, 저절로 여닫히는 문 등 집은 모든 사물을 빌어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낸다. 주성치가 각본과 제작을 맡고, 서극이 연출한 〈서유복요편〉(2017)의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세 제자는 인도를 꿈꾸며 집 없이 떠돈다. 그러나 목이 말라 우연히 방문한 집이든, 극진한 환대 속에 방문한 궁궐이든 살기 위해서는 집을 거쳐야만 한다. 나가는 문은 들어가는 문만큼 쉽게 열리지는 않는다. 그곳이 천국 같아서라면 좋겠지만, 이유는 정반대다. 인간의 표면 속에 감춰진 요괴는 놀이를 그치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이 방랑자들을 칭칭 감고는 놓아주지 않는다. 변신하는 것은 외부인들만은 아니다. 주인공을 역시 시시때때로 얼굴과 모양을 바꾼다.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는 난장 속에서 과연 실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도교적인 질문이 언뜻 스친다.

퇴마의식은 누군가의 진실한 모습을 되돌리지만 얼마나 어려울지를 은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만의 〈마신자2-빨간 옷 소녀의 비밀〉(2017, 정위호 감독)에서 죽은 뒤 되살아난 딸은 더는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니다. 딸에게서 달아나려 할수록 딸은 더 악랄하게 변한다.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되찾는다는 부분은 〈신과함께-죄와 벌〉에서 수홍의 에피소드와도 연결된다. 〈마신자2〉는 모성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공포영화의 형식에 빚대 표현했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해 여성들이 갖는 공포감을 절묘하게 반영했다고 여겨진다. 그에 비하면 〈신과함께-죄와 벌〉의 모성은 만능키에 가깝다. 물론 모성은 영화 밖에서도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만능키였다.

FEATURE

Unique Fantastic Shorts

There are staggering 95 Fantastic Short Films at BIFAN 2018, showcasing fresh and original stories from passionate genre enthusiasts. In addition to the competitive programs Bucheon Choice : Shorts 1 and 2 as well as Korean Fantastic Shorts, the Fantastic Short Film entries have been divided into an impressive 21 sections that will screen throughout the festival, offering cineastes a glimpse at emerging storytelling talent. While each section offers unique stories - for more details and screening times, please check the booklet or online - there are two programs that have been grouped together in terms of their fascinating themes.

FSF 19 - Off the Screen

Established Korean directors fill the 'Off the Screen' category, a selection of shorts featuring off-beat and quirky tales. Director LEE Kyoung-mi helms *The Lady From 406*, starring LEE Young-ae. The story follows a young who is upset due to the cigarette smoke that rise into her apartment, yet when she confronts the matter an unexpected situation occurs. Director LEE Won-suk's *Lala Land* presents a failing middle-aged actor who is desperate to be cast in a hip-hop film, going to comical lengths to achieve his goal. Acting royalty JEON Do-yeon stars in director YIM Pil-sung's *The Nest*, a psychological thriller about a family who adopt a boy with behavioural issues that sends the household down a dark path. Rounding out the program is director KIM Jong-kwan who presents music video *The Other Day* for a song by PARK Hyo-shin, and *Unknown Woman* in which a man meets a woman who claims she knows him, but he can't recall until a



The Lady From 406

pebble unleashes his memories.

FSF 20 - Yubari Shorts Collection

Japan's Yubari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joins forces with BIFAN to present the Yubari Shorts Collection, a series of six racy R-rated sexual comedy films designed to have audiences rolling in the aisles. *Crying Free Sex* follows a randy pair of special agents who have sex on a mission, but when enemies burst in the couple become stuck and must take down the syndicate in a unique position. *Escape* is about a man tricked into a life-or-death game with one rule - don't let his manhood appear on camera. *Night of the Dead Geisha* depicts screenwriter Misa who uses a cursed geisha legend as inspiration for her next script, until the ghost desires revenge. *Scissors Penis* follows a man who murders his wife after learning of her infidelity, and is cursed with scissors in place of his manhood. *Reach* is about a sex game that goes awry when the couple are trapped in a warehouse with a bomb. Lastly, *Tokinky Story* - a parody of *Tokyo Story* - presents a loving mother who surprises her son with an unannounced visit, yet is startled at the situation she confronts occurring in the bedroom.

Simon McEntegart

REVIEW

Legend of the Demon Cat

CHEN Kaige | China, Japan | 2017 | 129min | Family Zone

Celebrated Chinese auteur Chen KAIGE returns with the visually captivating *Legend of the Demon Cat*, a project so ambitious that sets took five years to construct - and which will later become a theme park. Blending period drama, the supernatural, murder mysteries, buddy-cop conventions, and even romance, *Demon Cat* is a challenging film to categorise. Yet director KAIGE effortlessly combines the array of storytelling devices on offer through the compelling puzzle at the centre of the narrative alongside the truly exquisite productio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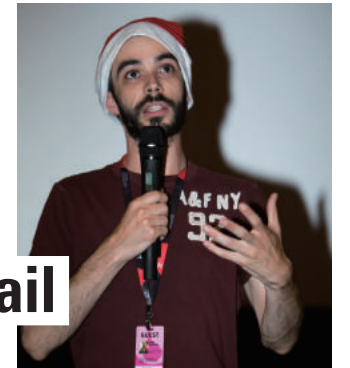
Set during the Tang Dynasty, *Demon Cat* follows Japanese monk Kukai and imperial scribe-turned-poet Bai Letian, who embark on a quest to solved the mysterious death of the Emperor. The duo quickly begin to suspect that a demon black cat may be responsible for the mayhem befalling the city's top officials, with the clues indicating a plot for revenge involving the fate of the beautiful Lady Yang.

Employing Chinese and Japanese protagonists as the leads in a blockbuster is particularly refreshing, with director KAIGE and cinematographer Cao YU masterfully following the sleuths through the stunningly realized locales. The elegant camerawork often helps to distract from the narrative inconsistencies, yet the exposition heavy second half alongside the unrefined CGI slow events down considerably.

Legend of the Demon Cat is a visual delight and an entertaining, if slightly overlong, blockbuster from the Middle Kingdom.

Simon McEntegart

INTERVIEW



John McPhail

Scottish director John McPHAIL comes to BIFAN with his wonderfully original zombie-musical-romantic-drama *Anna and the Apocalypse*. The film follows high school student Anna, who faces the daunting prospect of life after graduation - until a zombie outbreak occurs. The charismatic director held a GV event about the film.

Does your film reflect the Brexit political situation in the UK?

Zombie films usually stand for mass consumerism and politics, but the real themes in this film are that they're just kids dealing with death. It's about being young and moving forward with life and leaving things behind. It was written by Alan McDonald and Ryan McHenry, and Ryan unfortunately passed away. Alan [became] a young man dealing with death and the loss of a very good friend, and those are the themes of the film.

In pre-production, do you write the music lyrics first and then the script?

With the script and music, we didn't just want to break into song every 15 minutes. It always ha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story, so we split the script up and looked at where the songs should go. Then with my two composers, we'd write rough lyrics down and start to play with music, and talk about the themes we wanted to get across. What inspired you to make this kind of mixture of zombies and music?

I really really love zombie films, and I'm a big genre fan. So when I have a script like this, which features teenage angst and drama, and horror and musical elements, I just had to jump at it.

Simon McEntegart

Screening 07.17.T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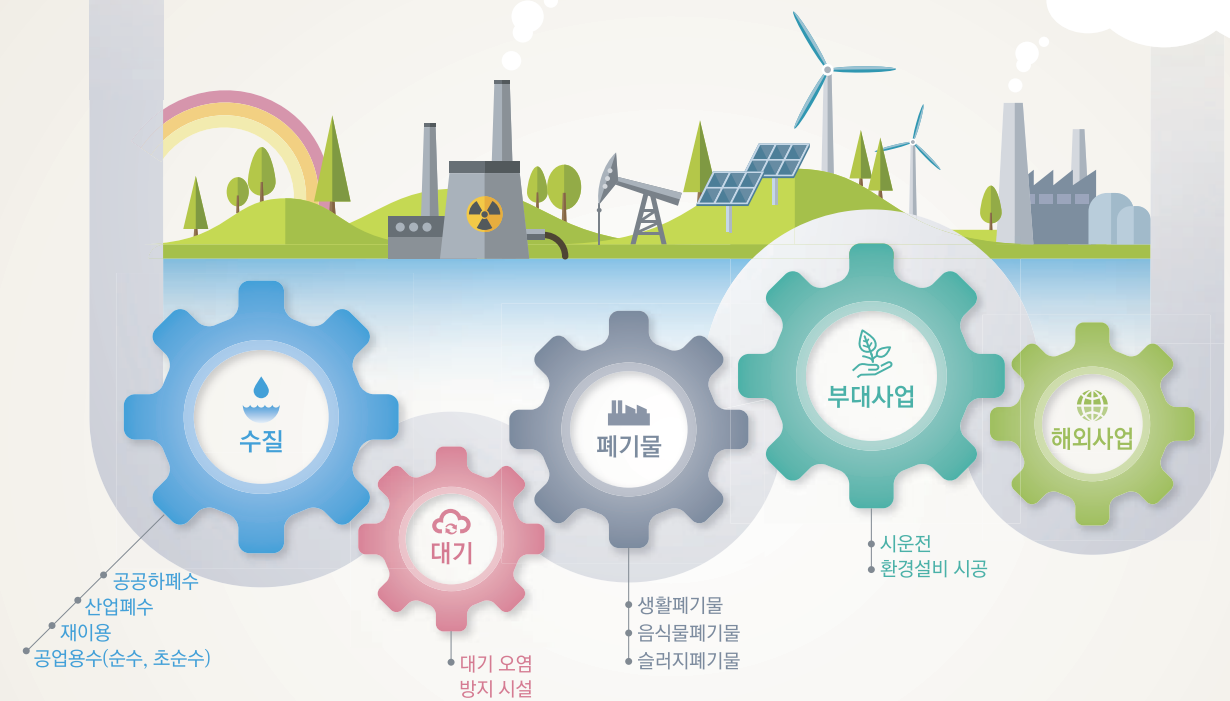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501 14:00 요묘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 캣 Legend of the Demon Cat 129min/㉔			502 17:00 비밀의 가족 The Mysterious Family* 93min/㉔			503 19:30 맘 Mom 146min/㉔		
FA City Hall, Fantastic Cube(1F)		504 11:00 이웃집 좀비 The Neighbor Zombie 89min/㉔			505 14:00 무사 Musa-The Warrior 155min/㉔			506 17:30 GV 세 친구 Braid 85min/㉔				507 20:30 극한캠프 Ruin Me 87min/㉔	
S02 CGV Sopoong 2				508 13:00 GV 라이브하드 Live Hard 100min/㉔			509 16: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8 Fantastic Short Films 18 70min/㉔			510 19:00 퍼스트본 Firstborn 90min/㉔			
S03 CGV Sopoong 3		511 11: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70min/㉔			512 14:00 타워, 눈부신 날 Tower: A Bright Day 106min/㉔			513 17:00 곤지암 Gonjiam: Haunted Asylum 94min/㉔			514 20:00 부동산 The Real Estate 88min/㉔		
S04 CGV Sopoong 4				515 13: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73min/㉔			516 16:30 악령의 상자, 에즈라 EZRA 145min/㉔			517 19:30 GV 행복의 나라 Land of Happiness 86min/㉔			
S05 CGV Sopoong 5			518 12:30 GV 카니발 클럽 The Cannibal Club 81min/㉔			519 15: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86min/㉔				520 19:30 GV 오늘도 평화로운 Super Margin 90min/㉔			
S06 CGV Sopoong 6		521 11:30 GV 하쿠나 마타타 폴레 폴레 Hakuna Matata Pole Pole 97min/㉔			522 15:30 어둠 The Dark 95min/㉔					523 19:30 GV 마담 뱅크 Scarlet Innocence 112min/㉔			
BU3 CGV Bucheon 3		524 11:00 GV 죽음을 부르는 밤 Dead Night 82min/㉔			525 14:00 지옥 인간 + 메가토크 From Beyond + MegaTalk 86min+Talk/㉔					526 20:00 딥 Deep 86min/㉔			
BU4 CGV Bucheon 4		527 12:00 인 더 더스트 Just a Breath Away 89min/㉔					528 16:00 GV 원컷 오브 더 데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One Cut of the Dead 95min/㉔			529 19:00 GV 청춘빌라 살인사건 Dogs in the House 93min/㉔			
BU5 CGV Bucheon 5				530 13:00 시체들의 새벽 Dawn of the Dead 127min/㉔			531 16: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9 Fantastic Short Films 19 69min/㉔			532 19:30 GV 법사 Wizard 81min/㉔			
BU6 CGV Bucheon 6				533 13:30 사탄의 승배자 Satan's Slaves 106min/㉔			534 17:00 업그레이드 Upgrade 100min/㉔			535 20:00 GV 공포의 침입자 Terrified 87min/㉔			
BU7 CGV Bucheon 7		536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69min/㉔			537 13:30 어둠의 사투 Monkey Shines: An Experiment in Fear 115min/㉔			538 16:30 GV 그녀에게는 죄가 없다 The Hungry Lion 78min/㉔			539 19:00 인디스토리 단편 3 INDIESTORY Shorts 3 50min/㉔		
SS Solon Art hall				540 14:30 스파이 캣 Marnie's World 92min/㉔			541 17: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73min/㉔						

[*] '비밀의 가족' 상영(502)은 영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The Mysterious Family' screening (502) dose not provide English subtitles.

등급 Rates
 ㉔ 전체 관람가 General ㉔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㉔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㉔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㉔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하이엔텍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후원합니다

환경선진강국! 하이엔텍이 함께합니다



하이엔텍은
 공공 하·폐수처리, 산업폐수, 공업용수(순수, 초순수) 및 재이용 등의 수처리 사업과
 대기오염방지, 폐자원 에너지화 등 환경시설 전문 O&M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경제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증대시켜
 환경선진강국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istory

2017	5월 하수 인회수 기술 개발	2010	4월 주식회사대우엔텍 사명 변경
2016	9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2008	5월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시설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11월 베트남 진출	6월	주식회사 금호환경기술 사명 변경
2015	1월 천진시발해경공그룹합작	2003	6월 오수 처리시설관리업 면허등록
6월	ISO 14001 획득	12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4	6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2002	2월 분뇨처리시설설계사업 면허등록
11월	OHSAS 18001 획득		
2013	1월 중국 천진수처리 법인 설립	2001	11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3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공공하수도)등록	12월	철물공사업 면허등록
6월	중국 환경보호시설 운영 면허증 획득	2000	3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7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거) 등록	6월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면허등록
2011	11월 ㉔ LG전자 자회사 편입	1999	10월 주식회사삼은물지킴이 법인 설립
	주식회사하이엔텍 사명 변경		

HiEntech
 LG affiliated company

Odyssey VR CINEMA

가상현실의 현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오디세이 VR 시네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DIGISONIC
EX-3D
Immersive Sound

360°
Spatial Sound

(주)와이에이치월드

[08512]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1408호(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5차)

TEL : 02-2135-6660

FAX : 070-4009-0775

www.yhworld.co.kr

 Odyssey VR CINEMA

 Odyssey VR CAFE

 Odyssey VR PARK

 DIGISONIC
EX-3D Immersive Media Solution

wing
bong

DASHY

MD
MOTION DEVICE